

금 3 등 메달 7개...광주시청 육상 역시 전국 최강

여자허들·400m 계주 등 우승 정혜림·한정미 2관왕 등극



광주시청 육상팀. 왼쪽부터 정혜림, 한정미, 강다슬, 유지연, 여호수아, 김민균, 최민석, 강희빈.

(광주시청 제공)

광주시청 육상팀이 전국 최강임을 재확인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올시즌 전반기 마지막 대회인 제48회 KBS배 전국육상경기대회에서 '아시아 허들 여왕' 정혜림(33)과 '여자 400m 강자' 한정미(24)가 2관왕에 올랐다. 대회에서 금 3, 은 1, 동 3개 등 메달 7개를 쓸어들었다.

정혜림은 28일 경북 예천공설운동장 육상경기장에서 열린 이 대회 여자대학·일반부 100m 허들 결승에서 13초49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다. 정혜림은 예선에서 13초32의 시즌 개인 최고 기록으로 결승에 올라 기대를 모았으나 개인 최고 기록(13초04)을 경신하지는 못했다. 흐린 날씨에 습도가 높은 탓에 최상 컨디션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정혜림은 지난 25일 열린 여자대학·일반부 400m 계주와 24일 열린 여자대학·일반부 100m에서도 각각 금메달 1개와 동메달 1개를 획득해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정혜림·한정미·유지연·강다슬이 호흡을 맞춘 광주시청 여자대학·일반부 400m 계주 결승에서 45초80으로 금메달을 땀다. 이들은 지난 2014년 대회기록(45초91)을 0.11초 잡아챘다.

정혜림은 여자대학·일반부 100m 결승에선 11초89로 대회타이 기록을 세우며 3위를 차지했다.

정혜림은 도쿄올림픽 출전권 획득을 위해 올해 국내대회 참가 위주로 컨디션 조절과 기록 단축에 매진할 예정이다.

한정미는 지난 24일 열린 여자대학·일반부 400

m 결승에서 56초03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오세라(김포시청·56초42)와 이아영(광양시청·56초89)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한 데 이어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강다슬은 금 1·은 1·동 1개를 획득했다. 강다슬은 24일 여자대학·일반부 100m에서 11초87로 대회신기록과 함께 2위를 차지한 데 이어 27일 여자대학·일반부 200m 결승에선 24초44의 기록으로

동메달을 차지했다.

강희빈·김민균·여호수아·최민석이 이어 달린 광주시청 남자대학·일반부 400m 계주팀은 25일 결승에서 40초50을 기록, 한국체대(40초37), 안양시청(40초48)에 이어 동메달을 차지했다.

광주시청 육상팀은 올 하반기 성적이 더 주목되는 팀이다.

육상 남자 100m 한국 기록(10초07) 보유자 김

국영(29·국군체육부대)이 오는 9월 전역해 광주시청 육상팀에 복귀하고, 멀리뛰기와 세단뛰기의 최강자 김덕현과 배찬미가 3개 전국대회에 출전한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하반기로 예정된 실업대회 2개 대회와 대한육상연맹 주관 문체부장관배 등 3개 대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광주 육상의 저력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기록의 사나이' 손흥민 시즌 마치고 귀국

다사다난했던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의 다섯 번째 시즌을 마친 손흥민이 28일 한국으로 돌아왔다.

손흥민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반바지 차림에 검은 모자와 마스크를 쓴 손흥민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검역 절차를 밟은 뒤 공항을 빠져나갔다.

손흥민은 전남(한국시간) 크리스털 팰리스와의 EPL 최종 라운드를 끝으로 2019-2020시즌을 마무리했다.

손흥민은 오른팔 골절 부상 등 악재 속에서도 자신의 한 시즌 정구리그 최다 공격포인트(21개·11골 10도움), 공식전 최다 공격포인트(30개·18골

12도움)를 올리며 '커리어 하이'를 기록했다.

전반기에는 차범근 전 수원 삼성 감독의 유럽 통산 121골을 뛰어넘어 한국인 유럽축구 최다 골 기록을 경신했다.

또 아시아 선수 최초로 'EPL 무대'에서 50골을 돌파했다.

토트넘은 올 시즌 매우 부진해 감독이 교체되는 등 흥역을 치렀으나 손흥민의 굳건한 활약 덕에 정구리그 최종 6위로 마무리,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티켓을 따냈다.

일단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손흥민은 9월 EPL 새 시즌 개막 전까지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다.

/연합뉴스



토트넘 손흥민이 2019-20시즌 일정을 마치고 28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발렌시아 새 감독에 가르시아...이강인 거취 주목

이강인(19)이 뛰는 스페인 프로축구 발렌시아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왓퍼드의 지휘봉을 잡았던 하비 가르시아(50·스페인) 감독을 새 사령관으로 선임했다.

발렌시아는 28일(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가르시아 감독의 영입을 발표했다. 계약 기간은 2022년 6월 30일까지다.

가르시아 감독은 2018년 왓퍼드의 지휘봉을 잡았으나 지난해 9월 팀의 성적 부진으로 경질됐다.

2007년 비야레알 유소년팀 감독을 시작으로 알메리아, 오사수나, 말라가(이상 스페인)와 루빈 카잔(러시아) 등을 이끈 경력이 있다.

발렌시아는 2019-2020시즌 두 차례 감독을 교체했지만 프리메라리가에서 9위(승점 53)에 그쳐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지난해 9월 부진한 성적에 구단주와 갈등이 있었던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탈 감독이 경질됐고, 이후 지휘봉을 잡았던 알베르트 셀라테스 감독은 지난달 팀을 떠났다.

가르시아 감독은 이날 부임 후 인터뷰에서 "선수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어린 선수들이라도 실력이 뛰어나다면 자리를 얻을 수 있다"며 "이미 팀에 수준 높은 젊은 선수들이 있고, 이들에게 기회를 줘 더 성장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감독의 방침이 이강인의 거취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강인은 이번 시즌 정구리그 17경기에 출전했다. 선발 출전은 3회에 그치며 많은 기회를 얻지 못했다. 현재 이강인은 이적을 원하고 있으나 발렌시아는 잔류를 설득하며 재계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NBA 스타 어빙 18억원 통큰 기부

시즌 불참 WNBA 선수들 위해



미국프로농구(NBA) 브루클린 네츠의 가드 카이리 어빙(28·미국·사진)이 미국여자프로농구(WNBA) 선수들을 위해 150만달러(약 18억원)를 기부한다.

미국 스포츠 전문 매체 ESPN은 28일(한국시간) "어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나 사회 정의 실현 등을 이유로 이번 시즌 WNBA 경기에 뛰지 않기로 한 선수들을 위해 150만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어빙이 내놓는 150만달러를 통한 지원을 원하는 WNBA 선수는 8월 11일까지 어빙의 KAI 인파워먼트 이니셔티브 재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어빙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때문에 시즌을 포기하거나 또는 사회 정의를 향한 싸움을 위해 이번 시즌에 뛰지 않기로 한 선수들이 있다"며 "이들의 결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빙의 2019-2020시즌 연봉은 ESPN 추정 3174만2000달러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379억원이다.

WNBA 2020시즌은 원래 5월 개막하려다가 코로나19 때문에 26일에서야 막을 올렸다.

팀당 22경기씩만 치르며 미국 플로리다주 브레이던턴의 IMG 아카데미에서 모든 경기를 진행한다.

/연합뉴스

K리그도 연봉 삭감하나

프로축구연맹 "가이드라인 마련 중"

안팎으로 코로나19 영향을 피하지 못하는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도 선수들의 연봉 삭감이 현실화할까.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주간 정례브리핑을 통해 '선수단 연봉 감액에 관한 입장'을 내고 "관련 논의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올해 K리그는 코로나19 여파에 개막이 2개월 넘게 미뤄지고 경기 수도 10경기 안팎으로 줄어 선수 연봉 삭감에 대한 얘기가 지속해서 나왔다.

경기 수 축소에 따른 입장 수입 감소는 물론이고, 기업구단의 경우엔 모기업 경영 환경의 불투명성, 사·도민구단의 지자체 세수 감소의 타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스포서 계약도 이미 곳곳에서 감액 협상이 이뤄졌거나 진행 중이다.

개막 전 연맹이 집계한 각 구단의 손실 추정치 합계는 약 576억원인데, 무관중 경기가 예상보다 길어지면서 이 금액도 훨씬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다음 달 초부터 관중 입장이 허용돼도 전체 수용 인원의 10%밖에 들어오지 못하고, 관중 발열 체크 등 방역 대책에 필요한 설비와 인건비가 추가로 소요될 것 등을 고려하면 구단의 손실을 만회하기 어렵다는 게 연맹의 의견이다.

대상은 추가 등록 마감 기준으로 선수 743명(군·팀인 상주 상무 제외) 중 기본급인 3600만원 이하를 받는 266명을 뺀 477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외되는 선수의 비중은 36%에 달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강철비2: 정상회담
2관	강철비2: 정상회담
3관	반도
4관	강철비2: 정상회담
5관	반도
6관	강철비2: 정상회담, #살아있다
9관	강철비2: 정상회담, 고 피쉬!
7관 씨네커머	강철비2: 정상회담, 슈퍼 레이스 세인트 주디, 소리꾼
8관 씨네커머	#살아있다, 알라딘, 존 워: 특별판 비사크 3: 엘리멘스터 대소동 1942: 연노운 배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노인과 바다

GAC기획공연 FOCUS 5
이재민 신작: 판소리극 <노인과 바다>
2020.08.21.(금)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베토벤 250시리즈 - NO.5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53회 정기연주회
2020. 8. 26.(수)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

광주시립합창단 제183회 정기연주회 prayer, 달의 춤

2020. 8. 27.(목) PM 7:30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